

虛勞의 治法 및 治方に 關한 文獻的 考察

柳 基 遠 · 白 泰 鉉

I. 序 論

III. 考察 및 總括

素門²¹⁾ <三部九候論>에서는 “虛卽補之”, <至眞要大論>에서는 “勞者溫之 損者溫之”, <陰陽應象大論>에서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라고 하여 虛勞治療의 基本原則을 제시하였다.

難經³²⁾에서는 “損其肺者 益其氣 …… 損其腎者 益其精 此治損之法也”라고 하여, 五臟虛損治療의 大法를 論하였다.

張²²⁾은 證因脈治의 方法을 이용하여 虛勞의 治療에 建立中氣할 目的으로 健中湯類를, 李¹⁵⁾는 仲景의 建中方法을 發展시켜서 補中 益氣 升陽하는 補中益氣湯을, 朱²⁷⁾는 ‘陽常有餘 陰常不足’을 強調하면서 滋陰降火與瀉火補陰하는 四物湯 加知栝 補陰丸 等을, 張²⁰⁾은 水盛火虧하는 陽虛症에 右歸飲 右歸丸 等을, 火盛 水虧하는 陰虛症에 左歸飲 左歸丸 等을 各各 使用할 것을 主張하였는데, 그 以前 以後에도 많은 醫家들에 依하여 虛勞의 治法 및 治方に 關해서 舉論되었다.

이에 筆者는 여러 醫家들의 文獻을 考察하여 虛勞의 治法 및 治方に 關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本文은 紙面 關係로 省略합니다. (必要하신 分은 內科學會로 連絡해 주십시오.)

虛勞에 關하여 論述된 主要文獻을 中心으로 治法 및 治方を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素門 <三部九候論>에서 “虛卽補之”, <至眞要大論>에서 “勞者溫之 損者溫之” <陰陽應象大論>에서 “精不足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라고 하여 虛勞 治法의 大綱을 提示하였는데, 이에 對한 註解로 張²¹⁾은 虛는 不足을 말하는 것으로 마땅히 補하여야 하고 溫은 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補藥은 甘溫之劑에 屬한다고 하였으며, 虞¹²⁾는 溫은 養의 意味로 使氣自充하면 形完하고, 味는 穀菽果菜와 같은 天賦自然 沖和之味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補陰之功이 있다고 하였고, 王¹¹⁾은 形衰而不充하면 溫補其氣하고 陰精이 不足하면 厚味藥으로서 補陽하여야 함을 말한다고 記述한 것에 依據하여 素門에서 言及된 虛勞 治法의 大綱이 溫補와 攝生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素門 <上古天真論>에서는 “飲食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形與神俱…”, “虛邪賊風 避之有時 揜淡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라고 하여 虛勞의 豫防에 對하여 論하였다.

難經³²⁾에서는 “損其肺者 益其氣 損其心者 調其營衛 損其脾者 調其飲食 適其寒溫 損其肝者 緩其中 損其腎者 益其精氣 此治損之法也”이라고 하여 五臟虛損治療의 大法를 提示하였다.

張²²⁾은 脈이 大하면 勞이고, 또한 그 脈이 매우 虛한것도 역시 勞라 하였으며, 多

樣한 虛勞 症狀에 建立中氣以生血化精한 目的으로 健中湯類를 用方하였고 扶正祛邪 祛瘀生新 等の 治法을 活用하면서 虛勞의 關하여 證因脈治의 方法으로 상세히 記述하였다²⁸⁾.

孫⁷⁾은 “肝勞病者 補心益之…… 腎勞病者 補肝氣以益之.”라고 하여 虛勞를 五臟으로 分類하여 論治하면서 治療上 安穀精生의 治法을 重要시 하였다.

陳²⁹⁾은 五臟의 氣는 虛實이 있고 이러한 虛實로 因하여 寒熱이 發生하는 바 治肝勞 實熱에는 猪膏方, 肝勞虛寒에 虎骨酒, 心勞 實熱에 泄熱湯, 心勞虛寒에 定心湯, 脾勞 實熱에 半夏湯, 脾勞虛寒에 茱萸膏, 肺勞 實熱에 引氣湯, 肺勞虛寒에 人蔘厚朴湯, 腎勞 實熱에 梔子湯, 腎勞虛寒에 五加皮湯을 活用하였으며, 六極을 虛實로 나누어 筋實極에 犀角地黃湯, 筋虛極에 烏麻酒, 脈實極에 地黃湯, 脈虛極에 防風圓, 肉實極에 右南散, 肉虛極에 大黃嗜湯, 氣實極에 前胡湯, 氣虛極에 鍾乳散, 精實極에 竹葉湯, 精虛極에는 磁石圓을 活用하여 五勞와 六極에 對한 寒熱虛實 辨證施治의 基礎를 마련하였다.

陳^等³¹⁾은 虛勞의 治方에 대하여 陰陽氣 血臟腑別로 詳述하였는데 그 中에서도 四君子湯 四物湯 雙和湯 十全大補湯 逍遙散 人蔘養營湯 無比山藥圓 兔絲子圓 樂苓建中湯 等이 그 代表的인 處方이다.

劉¹⁴⁾는 陽虛即陰盛하여 自上而下의 順으로 損傷되면 마땅히 辛甘淡한 藥性으로 陰虛即陽盛하여 自下而上의 順으로 損傷되면 마땅히 苦酸鹹한 藥性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하였다.

李¹⁵⁾는 素門〈調經論〉中 “陰虛生內熱”에서의 ‘陰虛’라는 意味에 對하여 陰液의 虧損이 아닌 病因側面에서 飲食失節과 勞倦內傷 等으로인한 中氣不足을 意味한다고 말하고 ‘陰虛生內熱’을 中氣不足으로 因한 發熱

이라고 主張하면서²³⁾ 그 具體的인 病理 및 治法治方을 提示하였는데 即 飲食失節 勞倦內傷等으로 因하여 脾胃氣衰하여 元氣가 不足해지면 心火가 獨盛하는데 心火는 곧 陰火로 陰火가 內熾하면 元氣가 消燼되고 陰火가 上沖하면 氣虛發熱症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그 治療에 있어서 마땅히 辛甘溫之劑로 補其中하고 升其陽하면 陰火가 下降하고 熱이 自退하게 된다는 甘溫除熱法을 主張하였는데 그 代表的인 處方이 補中益氣湯으로, 張仲景의 建中方法을 一步 發展시켰다. 또한 素門〈至眞要大論〉中 “勞者溫之損者溫之”의 治法을 強調하면서 苦寒之藥으로 脾胃를 損傷시키는 것을 大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朱²⁷⁾는 ‘陽常有餘 陰相不足’을 主張하면서 陰虛火旺으로 因한 虛勞症에 滋陰降火 및 瀉火補陰法을 強調하고, 그 治方으로 四物湯加知母黃柏 大補丸 補陰丸 補血丸 補虛丸 補腎丸 三補丸 五補湯 等을 使用하였다.

龔²⁾은 虛怯症者는 眞陰虧損하여 陰虛火動하는 것으로 滋陰降火湯 혹은 清離滋坎湯으로 治療하고, 後에 滋陰清火膏 六味地黃丸之類를 活用하였으며, 治療된 後에는 收功保後之藥인 坎離既濟丸을 使用하였다.

張²⁰⁾은 오로지 精氣로 因한 病이 虛損으로 이를 陽虛와 陰虛로 나누고 命門陽分 不足으로 水盛火虧한 陽虛症에 右歸飲 右歸丸 等の 辛甘溫燥之劑를 使用하고 生地黃 芍藥 天麥門冬 知柏苓連 等の 清涼寒滑之品은 절대 不可用이라 하였으며, 命門 陰 不足으로 火盛水虧한 陰虛症에 左歸飲 左歸丸 等을 活用하였다. 또한 氣血俱虛者는 大補元煎 或 八物湯 或 十全大補湯을, 五臟俱虛하여 平補하여야 할 者는 五福飲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徐⁵⁾는 勞傷中氣로 因한 陽氣之虛症에는 東垣의 補法을, 陰氣不足으로 因한 陰血之

虛症에는 丹溪의 補法을 따르되 만약 四物湯과 같은 補陰之劑를 久服하여도 陰이 不濟하면 필히 脾陽이 損傷되는 바 補腎滋陰하는데는 脾之助를 考慮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治法에 있어서 健脾溫胃法 및 滋腎補氣法을 主張하였다.

趙²⁶⁾는 左尺脈虛弱而細數者는 左腎之眞陰不足으로 六味丸을, 右尺脈遲軟 或沈細而數欲節者는 命門之相火 不足으로 八味丸을, 兩尺微弱者는 陰陽俱虛로 十補丸을 使用하였으며 <陰虛發熱論> 中 勞心好色하여 眞陰이 虧損되면 陽無所附하여 發熱하게 되는데 이러한 火는 滋陰만 하면 火가 自降한다고 主張하면서 瀉火하기 위하여 黃柏 天門冬과 같은 寒冷한 藥을 사용하여 脾胃 및 腎을 損傷시키는 丹溪의 瀉火補陰之法을 止揚하였다.

李¹⁷⁾는 人之虛와 五臟六腑와의 關係에서 脾와 腎이 獨主하는데 水는 萬物之元, 土는 萬物之母로서 二臟安和하면 一身皆治된다고 하면서 救腎者는 필히 陰血에 根本을 두어 六味丸을 救脾者는 필히 陽氣에 根本을 두어 補中益氣湯을 使用해야 하지만 脾土가 心과 上交하고 腎과 下交하는 故로 脾를 比較的 더 重視해야 된다고 하였다.

喻¹³⁾는 腎은 擊元氣하고 脾는 養形體하는 故로 治法에 있어서 脾腎 二臟이 重要하다고 하였으며, 河間의 '自上而下者 過于胃 即不加治 自下而上者 過于脾 即不可治'라는 것에 對하여 이르기를, 飲食은 能히 生血하는데 飲食少則血不生하고 血不生則陰不足以 配陽하여 五臟이 致損하게 되므로 脾胃를 重視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傅⁴⁾는 勞症과 虛損 二症은 外로는 비슷해 보이나 治法은 각기 달라서 虛損은 陰陽陽虛한 것으로 溫補하여야 하고, 勞症은 陰虛陽亢한 것으로 溫補를 忌하고 清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沈⁸⁾은 氣虛 血虛 陰虛 陽虛로 나누어 氣虛는 肺脾 二經의 虛로 필히 溫補中氣하는 補中益氣湯을, 血虛는 心肝 二經의 虛勞 四物湯 當歸補血湯을, 陽虛는 腎中 眞陽虛로 大補元陽하기 위하여 八味丸을, 陰虛는 腎水眞陰虛勞 大補眞陰하기 위하여 六味丸을 使用하였으며, 또한 五臟虛損別로 損肺傷氣에는 四君子湯을, 損心傷神에는 八珍湯을 損肝傷筋에는 牛膝丸 八味丸을, 損腎傷精에는 金剛丸 芎藭丸을, 損脾傷倉廩에는 十全大補湯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何³³⁾는 虛勞의 治療에 있어서 補腎水 培脾土 慎調攝의 세가지 治療原則을 提示하였다. 첫째 補陰六味左歸와 같은 甘寒滋水添精之品으로 補陰함으로써 制陽光하는 方法으로 예를 들면 殘燈火焰에 添油하면 焰光이 自小하는 것 처럼 補腎水하여 滋其陰한 즉 火自降하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脾胃는 後天之本으로 飲食多自能生精生血하게 되는데 仲景이 甘溫藥으로 用方하여 建立中氣함으로써 生血化精하게 하는 治法을 虛勞之良法이라고 하면서 土強則金旺 金旺則水充하는 故로 何臟受傷을 莫論하고 마땅히 脾胃를 調養하는 것이 爲主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憂思菀怒之人, 鏹寡僧尼童男室女 및 不得意之人은 필히 情壞를 消遣하고 自解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戒酒色 節勞逸을 強調하면서 廣性子가 말한 '必靜必清 毋勞汝形 毋勞汝精'을 虛勞調攝之良法이라고 하였다.

吳等⁹⁾은 後天의 臟腑인 脾胃는 生穀生化榮衛하는 故로 治法本乎氣血이며, 先天의 臟腑인 腎은 藏精氣 生化之原인 故로 治法本乎陰陽이라 하고, 五臟虛損의 治法은 그 다음이라고 하면서 陰虛火動에 拯陰理勞湯을 陽虛氣弱에 拯陽理勞湯을, 氣虛에 四君子湯類를, 血虛에 四物湯類를 活用하였다.

徐⁵⁾는 仲景의 이른바 虛勞라는 脈浮大乳

遲한 虛寒之症을 말하는 것이며, 今의 이 큰바 虛勞는 陰竭하여 浮火上炎하고 脈皆細數한 것으로 建中湯의 立方趣旨는 이와 相反된다고 하면서 虛勞의 治療는 마땅히 淸肺 養胃 滋腎 等の 治法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李¹⁶⁾는 脾肺不足하면 氣虛, 心肝不足하면 血虛, 腎水不足하면 陰虛, 心肺損하면 陽虛가 된다고 하면서 氣虛에 補中益氣湯, 血虛에 四物湯, 氣血俱虛에 歸脾湯, 陽虛에 黃耆健中湯, 陰虛에 六味地黃湯, 陰陽俱虛에 八味丸을 使用하였다.

周¹⁾는 陽虛即氣虛로 四君子湯 桂附湯 鹿茸大補湯을, 陰虛即血虛로 四物湯 大補陰丸 補天大造丸을, 陰陽俱虛에는 固眞陰子 十全大補湯 雙和湯 八物湯을, 肝虛에 雙利湯 歸茸元 拱辰丹을, 心虛에 天王補心丹 古庵心腎丸 究原心腎丸을, 脾虛에 參苓白朮散 天真元 橘皮煎元, 肺虛에 獨蓼湯 人蓼膏, 腎虛에 六味元 三一腎氣丸 八味元을, 陰虛火動에 滋陰降火湯 淸禹滋坎湯 六味元을 使用하였다.

以上을 總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內徑에서 '虛即補之' '勞者溫之 損者溫之'라고 하여 虛勞의 基本治法을 提示하였다.

둘째 : 內徑 以後 많은 醫家들에 依하여 그 治療方法이 具體化되었는데 이를 氣血陰陽不足의 論治方法과 五臟虛損의 論治方法으로 二分할 수 있는데, '後天之治本血氣 先天之治法陰陽 腎肝心肺在後'라 하여 氣血陰陽不足의 論治方法이 重要視 되었다.

1) 氣血陰陽不足의 論治法

一般的으로 氣虛·陽虛症에는 東垣의 補中益氣 升陽의 溫補法이, 血虛·陰虛症에는 丹

溪의 滋陰降火與瀉火補陰의 淸補法이 代表的인데 이 두가지 治法異論의 關鍵은 虛勞의 特徵的 症候인 發熱을 어떻게 除去하느냐 이었다. 즉 東垣은 氣虛發熱을 強調하고 甘溫之劑로 補中益氣하고 升陽하면 陰火가 自降한다는 甘溫除熱法을 主張하면서 補中益氣湯을 創方하였고, 丹溪는 陰虛發熱을 強調하고 甘寒之劑로 滋陰하면 火가 自降하고 瀉火하여 補陰한다는 滋陰降火與瀉火補陰法을 強調하면서 大補陰丸 三補丸等을 創方하였다.

以後 대다수의 醫家들이 氣虛·陽虛하면 東垣의 補法을, 血虛·陰虛하면 丹溪의 補法을 活用하면서 '陽虛는 易補, 陰虛는 難補'라고 하여 陰血未枯之時에 早補, 眞陰未槁之時에는 重養할 것을 強調하였다.

한편 張景岳은 陽中求陰 陰中求陽의 治療原則을 主張하여 火盛水虧한 陰虛症에 左歸飲 左歸丸을, 水盛火虧한 陽虛症에 右歸丸 右歸飲을 使用하였다.

2) 五臟虛損의 論治法

難經에서 "損其肺者 益其氣 損其心者 調其營衛 損其脾者 調其飲食 適其寒溫 損其肝者 緩其中 損其腎者 益其精氣 此治損之大法"이라고 하여 五臟虛損治療의 大法를 提示하였다.

以後 陳無擇은 五勞(肝勞 心勞 脾勞 肺勞 腎勞)를 虛 實 寒 熱로 分別하여 論治하였고, 樓等^{1), 3), 10), 18), 19)}은 五臟 各各의 不足에 대하여 論治하였으며, 沈等^{8), 16)}은 氣血 陰陽不足과 五臟虛損의 相關性에 對하여 記述하였는데 즉 '氣虛-脾肺不足, 血虛-心肝不足, 陽虛-腎陽不足 或 心肺不足, 陰虛-腎水不足 或 肝腎不足'와 같이 連繫시켰다.

셋째 : 虛勞治療時 많은 醫家^{1), 5), 13-15)}.

17). 19). 20). 26). 30). 33)들이 治療의 目標라기 보다는 必修 前提要件으로서 '調理脾胃'를 強調하였는데 이에 對한 當爲性은 다음과 같다.

- 1) 虛勞의 治療는 단지 用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精不足者 補之以味'라고 하였듯이 飲食도 重要하여 脾胃가 後天之本이 되는 까닭에 補脾養胃하여 飲食을 잘 攝取할 수 있어야 精神氣血이 自生하게 된다.
- 2) 上損 或은 下損이 脾胃에 까지 미치면 重症이 되므로 脾胃는 吉凶의 關鍵이 된다
- 3) 補陰補血藥을 써도 陰이 不濟되는 이유는 脾氣가 輸升할 能力이 不足한 까닭이다.
- 4) 補陰補血藥은 대부분 寒冷之劑로 滯하기 쉬우며, 久服하면 腸滑하게 되고 脾陽을 損傷시키게 되며, 나아가 胃氣마저 衰弱하게 되면 死症에 이르게 된다.

넷째 : 本論 中에 收錄된 文獻을 中心으로 살펴 본 虛勞의 일반적인 治方으로는 氣虛(脾肺不足)에 補中益氣湯 四君者湯 健中湯類, 血虛(心肝不足)에 四物湯 大補眞飲 大造丸, 陽虛(心肺不足 或腎陽不足)에 右歸飲 右歸丸 八味丸, 陰虛(肝腎不足 或腎水不足)에 左歸飲 左歸丸 六味丸 滋陰降火湯 等을 多用하였다.

다섯째 : 虛勞의 豫防으로 調神氣 節起居 節飲食 節勞逸 省思慮 戒酒色 攝溥滋味等の 慎調攝法을 強調하였다.

IV. 結 論

以上에서 虛勞의 治法 및 治方에 관하여 여러 醫家들의 異論을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 虛勞의 基本治法은 '虛即補之' '勞者溫之 損者溫之'이다.
- 2) 虛勞의 일반적인 治法으로 溫補와 清補가 있는데, 氣虛-陽虛에는 仲景의 建立中氣, 東垣의 補中益氣 升陽의 溫補法이, 血虛-陰虛症에는 丹溪의 滋陰降火 與瀉火補陰의 清補法이 代表的이다.
- 3) 虛勞의 治療時 많은 醫家들이 調理脾胃를 強調하였다.
- 4) 虛勞의 일반적인 治方으로는 氣虛(脾肺不足)에 補中益氣湯 四君者湯 健中湯類 血虛(心肝不足)에 四物湯 大補眞飲 大造丸, 陽虛(心肺不足 或腎陽不足)에 右歸飲 右歸丸 八味丸, 陰虛(肝腎不足 或腎水不足)에 左歸飲 左歸丸 六味丸 滋陰降火湯, 陰陽俱虛에 固眞飲子 八物湯 雙和湯 十全大補湯 等을 多用하였다.
- 5) 虛勞의 豫防으로 調神氣 節起居 節飲食 節勞逸 省思慮 戒酒色 攝溥滋味等の 慎調攝法을 強調하였다.

參 考 文 獻

1. 周命新 :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1975, PP. 100, 101.
2. 龔延賢 : 萬病回春, 台北, 大中國圖書公司, 民國70年, PP. 203 204.
3. 樓全善 : 醫學綱目, 台南, 北一出版社, 民國62年 卷五, PP. 28-50.
4. 傅青主 : 傅青主男女科, 서울, 大星出版社, 1984, P. 28.
5. 徐春甫 : 古今醫統大全, 台北, 新文豐出版社, 1982, PP. 3342, 3343.
6. 葉天士 : 臨證指南醫案, 台北, 旋風出

- 版社，民國 67 年，卷一，
PP. 20-21.
7. 孫思邈：千金要方，서울，大星出版社，
1984，PP. 208, 238, 273, 308,
343.
 8. 沈金鰲：沈氏尊生書，台北，自由出版
社，民國68年，PP.193, 194.
 9. 吳謙等：醫宗金鑑，서울 翰林社，1975
卷四，PP.99-101.
 10. 王背堂：六科準繩，台北，新門風出版
社，民國68年，卷一 PP.41 42
 11. 王琦等：黃帝內徑素門今釋，서울，成
輔社，1979，P.35.
 12. 虞天民：醫學正傳，北京，人民衛生出
版社，1981，P.155.
 13. 喻昌：醫門法律，上海，上海科學技
術出版社，1983，PP.220 226.
 14. 劉河間：劉河間三六書(素門病機氣義保
命集)，서울，成輔社，1976，
卷下 P.81
 15. 李東垣：東垣十種醫書(脾胃論)，台北，
五州出版社，民國73年，PP.81
87.
 16. 李用粹：證治彙補，서울，日新出版社，
1983，PP.126-129.
 17. 李中梓：醫宗必讀，台北，大方出版社，
1980，PP.228 229.
 18. 李 梴：醫學人文，서울 翰成社，1982，
P.355.
 19. 林珮琴：類證治裁，台北，旋豐出版社，
民國59年，PP.77, 78.
 20. 張景岳：景岳全書，서울，東洋綜合通
信教育院出版社，1982，PP.288
-290.
 21. 張隱庵·馬元臺合註：黃帝內徑素門，台
北，台聯國風出版社，民國 66
PP.3, 4, 56, 162, 415, 659.
 22. 張仲景：金匱要略方論，서울，醫道韓
國社，1977，PP.35-38.
 23. 丁光迪：洞垣學說論文集，서울，大星
出版社，1990，PP.80, 83.
 24. 程國彭：醫學心悟，台北，大方出版社，
民國 67，PP.133, 134.
 25. 程士德主編：內徑，知音出版社，民國
79年，P.332.
 26. 趙獻可：醫貫，北京，人民衛生出版社，
1982，PP.55-58.
 27. 朱震亨：丹溪心悟，台北，五州出版社，
民國 70年，卷十九，PP. 10,
15-19.
 28. 中醫內科教研組·第一附屬醫院內科編：
中醫內科學，上海，江蘇科學
技術出版社，1984，P.121.
 29. 陳無澤：三因極一病證方論，北京，人
民衛生出版社，1983，PP.102-
106.
 30. 秦伯未：實用中醫學，台北，新門豐出
版社，民國 66年，P.37.
 31. 陳師文：太平惠民和劑局方，台北，旋
風出版社，民國 64年，卷五
PP.1-12.
 32. 扁 鵲：難經，서울，正信出版社，1985
PP.75-77.
 33. 何 炫：虛勞心傳，上海，學林出版社，
1984，PP.13-19.
 34. 華 陀：中藏經，北京，人民衛生出版
社，1990，P.37.
 35. 黃文東等：實用中醫內科學，上海，上
海科學技術出版社，1986，
PP.448 449 504

A B S T R A C T

The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treatment and drugs
of Hu - Ro (虛勞)

O.M.D. Baek, tae hyun
Dep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of Sangji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treatment and drugs of Hu-Ro (虛勞) by referring to 35 literat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treatment of Hu-Ro (虛勞) is as follows.

basic treatment : hujeokboji (虛即補之)
nojaonji sonjaonji (勞者溫之 損者溫之)

general treatment : onbo (溫補) - bojungikgiseongyang (補中益氣升陽)
chungbo (清補) - jaeomganhwa (滋陰降火)

2. The drugs of Gi-Su (氣嗽) is as follows.

gihu (氣虛) : bojungikgitang (補中益氣湯), sagunjatang (四君子湯)
hulhu (血虛) : samultang (四物湯), daebojineum (大補眞飲)
yanghu (陽虛) : oogwieum (右歸飲), jwagihwna (左歸丸)
eumhu (陰虛) : yukmihwan (六味丸), jwagihwna (左歸丸)
eumyangguhu (陰陽俱虛) : gojineumja (固眞飲子), palmultang (八物湯)